

직장 남성들의 근무복 실태조사 연구(2) - 근무복 착용도와 관리도를 중심으로 -

서미아·박선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A Research Study on Work-Man's Uniform(2)

Mi-A Suh and Seon-Hee Par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Hanya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결과 및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work-man's Uniform should be coincident with the image of his firm and accounted of the function according as its purpose. We made questions to 404 workers at 8 firm in our country through the questionnaire papers to know about a work-man's uniform and researched whether the satisfactory in wearing his uniform had relation with his type of business, grade, carrer, age, marriage, and monthly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1. In the case of wearing the uniform, many workers answered they always wore their uniform in the firm. It was shown that the office workers wore their uniform much more than workers in the production department. The longer the time working, the older age, the lower grade of school career are, the more workers wear. The order of the importance for the uniform was the function, the symbol, the originality, and the fashion. The longer their career in the firm was, the more important the function of their uniform was.

2. The order of dirty part in taking care of the uniform was cuffs, collar, the front of part in an upper garment and below the knee, the hip in pants. It was very easy for the workers in the exeperts, or administrators and office workers than others to be dirty in the cuffs part of the uniform. Worn part of the uniform showed highest cuffs in an upper garment and a zipper in pants. The order of cleaning the uniform was washing by water, no ironing, and cleaning in their house.

I. 서 론

기업의 근무복은 유니폼의 한 형태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착용되는 의복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속된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되어야 하고, 시대적인 패션감각이나 미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의복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니폼 및 근무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러 직종의 유니폼의 디자인이나 착용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직장 남성들의 근무복 디자인 실태조사와 근무복 만족도 및 선호도를 연구한 전 연구¹⁾에 이어서, 직장 남성들의 근무복 착용도와 관리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근무자의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학력, 결혼 유무, 월수입 등의 여러 변수가 근무복의 착용도 및 관리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남성 근무복의 개선방향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직장남성들의 근무복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체 관리자들에게 대한 직접면담법을 통한 조사와, 조사대상 직장인들에 대해 설문지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근무복 전반에 대한 착용도 및 관리도의 조사로써,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근무자의 여러 독립변수(회사, 근무업종, 직위, 근무경력, 근무시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월평균수입)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의 착용도 및 관리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한 근무복은 조사시기가 겨울인 관계로, 겨울용 근무복으로 한정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직종이 다른 8개 기업의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1994년 12월 6일부터 1995년 1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60부를 배부하여 45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50부를 제외한 404부를 본

1) 박진희, 서미아, "직장 남성들의 근무복 실태조사 연구(1)" 복식문화연구 제 4권 제1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ackage를 사용하여, 각 문항마다 빈도 및 상대빈도를 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독립변수와 근무복 착용도 및 관리도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는 크로스탭 블레이션에 의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배경

<표 1>은 조사대상자의 배경으로 회사명,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월평균수입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회 사 명	A 시 멘 트	50	12.4	직 위	평 사 원	261	64.6
	DA 건설 본사	27	6.7		계 장	94	23.3
	DA 건설 현장	29	7.2		과 장	34	8.4
	K 건 설	47	11.6		부 장	15	3.7
	S 전 자	58	14.4	1일근무시간	8 시 간 이 하	147	36.4
	K 자 동 차	68	16.8		9~10시간 이하	208	51.5
	DL 건 설	45	11.1		11 시 간 이 상	49	12.1
	D 본 사	25	6.2	연 령	만 29세 이하	147	36.4
	D 공 장	23	5.7		만 30~39세 이하	192	47.5
	N 건 설	32	7.9		만 40~49세 이하	54	13.4
			만 50세 이상		11	2.7	
근 무 업 종	전문·행정관리직	188	46.5	결 혼 여 부	미 혼	135	33.4
	사 무 직	93	23.0		기 혼	269	66.6
	판매·서비스직	47	11.6	학 령	고 졸 이 하	181	44.8
	생 산 직	76	18.8		대 졸 이 상	223	55.2
근 무 경 령	2 년 미 만	80	19.8	월평균 수입	50~100만원 미만	93	23.0
	2~5 년 미 만	103	25.5		100~150만원 미만	214	53.0
	5~10 년 미 만	126	31.2		150~200만원 미만	77	19.1
	10~15 년 미 만	60	14.9		200 만 원 이 상	20	5.0
	15 년 이 상	35	8.7				
				합 계		404	100.0

<표 2> 독립변수와 근무복 착용도 및 관리도에 대한 유의차 검증

구분	독립변수	회사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결혼여부	학력	소득
	종속변수									
착용도	착용여부		***		*		*		***	
	활용도									
	중요성					**				
	업무의 효율성							*		
	소속감	**								
관리도	오염부위		***		*					
	손상부위		***							
	솔기특어지는부위									
	세탁장소		**		*					
	세탁방법		**							
	세탁횟수		***							
	다림질여부		*		*					
	새근무복관리		***	***						

주) * : P<.05, ** : P<.01, *** : P<.001

2. 독립변수와 근무복의 착용도 및 관리도와의 관계

근무복을 착용하는 남자사원들의 배경변인이 되는 회사,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평균수입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와 근무복의 착용도 및 관리도와의 관계를 χ^2 -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용도에서는, 근무복의 착용여부는 근무업종, 근무시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근무업종과 학력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근무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복 착용시의 업무의 효율성은 학력에 따라서, 소속감에 대한 인지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복의 관리도에서는, 근무복의 오염부위, 손상부위, 세탁장소, 세탁방법, 세탁횟수, 다림질 여부, 새근무복 관리는 근무업종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오염부위, 세탁장소, 다림질 여부는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새근무복 관리는 직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무복 착용도

1) 근무복 착용 여부

직장남성들은 근무시에 근무복을 어느 정도 착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항상 입고 근무한다가 65.1%, 가끔 입는다가 33.1%, 입지 않는다가 1.2%로 나타나, 근무복 착용율이 아주 높

<표 3> 근무업종에 따른 근무복 착용여부

N 행% 열%	근 무 업 종					χ ² -test
	전문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합계	
항상 입는다	122 46.4 64.9	46 17.5 49.5	26 9.9 55.3	69 26.2 90.8	263 65.1	Value= 34.84586 DF=6 p<.001***
가끔 입는다	63 46.3 33.5	46 33.8 49.5	20 14.7 42.6	7 5.1 9.2	136 33.7	
입지 않는다	3 60.0 1.6	1 20.0 1.1	1 20.0 2.1	-	5 1.2	
합 계	188 46.5	93 23.0	47 11.6	76 18.8	404 100.0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독립변수와 근무복 착용 여부와의 관계는, 근무업종, 근무시간, 연령, 학력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근무업종과 학력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근무복 착용 여부와 근무업종과의 관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복을 항상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생산직, 전문·행정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특히 생산직의 근무복 착용비율은 90.8%로써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무환경이 여러가지 조건의 생산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복이 기능상 혹은 신체보호상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과 연령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복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더 인식하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근무복 착용 여부와 학력과의 관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이하의 학력이 낮은 집단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 높은 집단보다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복 착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2) 근무복 활용도

근무복 활용도에서 근무복 착용을, 근무중이 아닌 외출시에도 입는지를 알아본 결과 74.7%가 근무중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출시에도 착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5.3%로 나타

<표 4> 학력에 따른 근무복 착용여부

N 행% 열%	학 력			x ² -test
	고졸 이하	대졸 이상	합계	
항상 입는다	137 52.1 75.7	126 47.9 56.5	263 65.1	Value= 16.45392 DF=2 p<.001***
가끔 입는다	43 31.6 23.8	93 68.4 41.7	136 33.7	
입지 않는다	1 20.0 0.6	4 80.0 1.8	5 1.2	
합 계	181 44.8	223 55.2	404 100.0	

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²⁾의 연구에서 여사원들은 4.4%만이 외출시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남자사원들은 여사원들에 비해 근무복을 외출시에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근무복 활용도는 독립변수에 따라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3) 근무복의 중요성 인지

근무복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69.3%, 다음으로 상징성이 26.7%, 독창성, 유행성, 심미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자사원들은 근무복은 무엇보다도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의 이미지 전달 등 상징성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가능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징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은 근무경력 10년 미만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4) 근무복 착용시 업무의 효율성 인지

근무복 착용시 업무 수행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근무복 착용시 업무 수행이 더 수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8.9%, 근무복과 무관하다가 32.4%로 나타나, 여사무원의 경우³⁾와 비교해 보면 남자사원들이 여사무원보다 근무복 착용과 업무의 효율성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독립변수와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학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고졸 이하는 대졸 이상보다 근무복 착용시 업무의 효율성이 더 수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졸 이상은 업무의 효율성과 무관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5) 근무복 착용시 소속감

근무복 착용시의 소속감은 77.5%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22.5%는 소속감을 느

2) 김선미, "유니폼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68.

3) 송경린, "서울시내 은행 여직원의 유니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20.

<표 5> 근무경력에 따른 근무복의 중요성

중요성	N 행% 열%	근 무 경 력					X ² -test
		2년 미만	2~5년 미만	5~10 년 미만	10~15 년 미만	15년 이상	
심 미 성	3 50.0 3.8	1 16.7 1.0	2 33.3 1.6	-	-	6 1.5	Value== 35.79062 DF=16 p<.01**
상 징 성	22 20.4 27.5	33 30.6 32.0	36 33.3 28.6	11 10.2 18.3	6 5.6 17.1	108 26.7	
기 능 성	50 17.9 62.5	67 23.9 65.0	88 31.4 69.8	49 17.5 81.7	26 9.3 74.3	280 69.3	
독 창 성	2 28.6 2.5	2 28.6 1.9	-	-	3 42.9 8.6	7 1.7	
유 행 성	3 100.0 3.81	-	-	-	-	3 0.7	
합 계	80 19.8	103 25.5	126 31.2	60 14.9	35 8.7	404 100.0	

까지 않는다고 하여,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근무복 착용시 소속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은, 회사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1**). 회사별로 보면 DA건설현장, K건설, K자동차, D주식회사 공장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 연구⁴⁾에서 디자인에 만족함을 나타낸 회사들로써, 근무복 디자인에 대해 만족감이 클 때 근무복 착용시 느끼는 소속감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는 근무복의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여 사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사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근무복 관리도

1) 오염도

4) 박선화, 서미야, 전개논문, p.83.

<표 6> 근무업종에 따른 상의 오염부위

착용여부	N 행% 열%	근 무 업 종					χ ² -test
		전문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합계	
칼 라	34 40.5 18.1	14 16.7 15.1	19 22.6 40.4	17 20.2 22.4	84 20.8	Value= 33.13259 DF=12 p<.001***	
앞 단	17 34.0 9.0	11 22.0 11.8	4 8.0 8.5	18 36.0 23.7	50 12.4		
소매 끝	129 50.6 68.6	65 25.5 69.9	21 8.2 44.7	40 15.7 52.6	255 63.1		
주머니	5 71.4 2.7	-	2 28.6 4.3	-	7 1.7		
밑 단	3 37.5 1.6	3 37.5 3.2	1 12.5 2.1	1 12.5 1.3	8 2.0		
합 계	188 46.5	93 23.0	47 11.6	76 18.8	404 100.0		

근무복에서 가장 오염이 잘 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상의는 소매끝이 63.1%로 가장 높았고 칼라부위 20.8%, 앞단부위 12.45%로 나타났다. 하의는 밑단부위 35.2%, 무릎부위 31%, 엉덩이부위의 순서였다.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근무업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근무업종에 따른 상의 오염부위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매끝의 오염은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많았고, 칼라부위의 오염은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업종에 따른 하의의 오염정도는, 무릎부위의 오염이 생산직에서 많았고, 엉덩이 부위의 오염은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밑단의 오염은 판매·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나서 직종의 업무 특징에 따라 근무복의 오염부위가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직종에 따라 주요 동작범위나 작업환경의 여건이 다름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근무복의 소재 및 디자인 선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2) 손상도

근무복의 손상부위를 조사한 결과, 상의는 소매끝이 39.4%, 다음으로 소매, 팔꿈치의 순이었고, 하의는 지퍼 23.9%, 엉덩이부위, 밑단부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이 잘 되는 부위가

손상도도 큼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세탁으로 인한 손상과 더불어 업무수행에 따라 특정부위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의에서 지퍼의 손상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제조업체에서 부자재의 품질에 더 신경을 써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변수와 상관은 근무업종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p < .001^{***}$), 그 결과는 오염부위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3) 관리도

(1) 세 탁

근무복의 세탁방법은 물빨래가 72.5%로 대부분 물빨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무복의 소재가 거의 폴리에스테르나 혼방직물이며 또 세탁회수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탁장소는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다림질은 안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세탁횟수는 계절에 따라 다르나, 대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업종에 따라서 세탁방법, 세탁장소, 세탁횟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세탁방법에 있어서는, 생산직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물빨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직은 드라이클리닝하는 비율과 다림질하는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고객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더 단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세탁장소에 있어서는, 생산직에서는 회사에서 세탁을 해주는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탁횟수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세탁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작업환경이나 작업수행등으로 근무복의 오염도가 커지거나, 업무의 성격이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직종에 비해 착용도가 많아짐으로 인해 세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관 리

근무복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면, 이전의 근무복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새근무복과 번갈아 입는 경우가 37.6%,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23.3%, 그대로 둔다의 순서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업종과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생산직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또한 직위가 낮을수록, 이전의 근무복을 새근무복과 함께 번갈아 입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IV. 결 론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근무복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에 대한 착용도와 관리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기업의 근무복 착용도를 살펴보면, 남자사원들은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직에서 근무복 착용율이 높게 나타났고, 근무시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활용도는, 근무복을 근무중에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여사무원들에 비해 외출시에도 근무복을 입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근무복의 기능성, 상징성, 독창성, 심미성, 유행성의 순서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근무경력이 오래 될수록 근무복의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 비율이 높았고, 근무복의 중요성을 상징성과 기능성에 두는 사원일수록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업무의 효율성은, 평상복 착용시보다 더 수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직장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편으로 나타났고,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을수록 근무복의 상징성과 기능성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 2) 근무복 관리도에서, 오염도는 상의의 경우 소매끝, 칼라, 앞단의 순으로 오염이 많이 되었으며, 하의의 경우 밑단, 무릎부위, 엉덩이 부위의 순이었다. 상의에서 소매끝의 오염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칼라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오염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의는 무릎부위의 오염은 생산직에서, 엉덩이 부위의 오염은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손상부위는 상의의 경우 소매끝, 하의는 지퍼가 가장 손상이 잘 되는 부위로 나타났다. 소매끝의 손상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칼라, 지퍼의 손상도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염이 잘 되는 부위가 손상도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 관리에서, 세탁방법으로는 물빨래가 많았고 다림질은 안하는 편이며, 집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직의 경우, 물빨래를 하는 비율이 높고, 회사에서 세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서비스직은 드라이클리닝하는 비율과 다림질하는 비율이 높았다. 세탁회수는 대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복 교체시, 이전 근무복에 대한 관리는 새근무복과 번갈아 입거나 회사에 반납하거나 그대로 두는 순서로 나타났으며, 직위가 낮을수록, 생산직종에서 새근무복과 번갈아 입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직장남성들의 근무복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 직장남성들의 여러 변수들과 근무복의 만족도, 선호도, 착용도, 관리도 등은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 기업체나 또한 근무복 제조업체에서는, 근무복의 디자인 결정시, 이러한 근무자들의 여러 변수에 따른 근무복의 평가 및 근무복 착용 환경을 고려하여 근무복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각기업내에서도, 근무복의 전체적인 상징성이나 디자인 이미지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부서별로 근무환경조건이나 구체적인 직무 및 작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환경조건별, 직종별, 작업내용별로 소재 및 디자인 등을 다르게 디자인함으로써, 작업환경에 알맞으며 또한 작업의 능률 향상과 더불어 자사 기업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무복의 개발을 모색하는 일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고영경, “우리나라 항공사 여승무원제복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2. 김금주, “우리나라 유니폼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3. 김기란, “사무직여성의 유니폼 착용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4. 김선미, “유니폼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5.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창머출판사, 1984.
6. 석명금, “소아병동의 유니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7. 신인수, 「피복위생학」, 경춘사, 1984.
8. 윤학자, “작업복의 색과 구성이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연구보고, 1978.
9. 이경희, “직업인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0. 이화연, 손미영, 민동원(역), 「의복:제2의 피부」, Marilyn J. Horn, Louis M. Gurel(서울:까치), 1988.
1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5.
12. 被服文化協, 「服裝大百科事典」下卷, (東京:文化出版局), 1969.
13. Flu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International Universities Dress, Inc. New York, 1976.
14. Hurlock, E. B., “*Adolescent Development(4th ed)*”, Tokyo,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McGraw-Hill Kdgakusha, 1973.
15. Kelly, E., Jones, S., Hatch, D. A. & Nelson, R., “How to Help Your Students Be Successful at Job Hunt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6.
16. Ryan, M. 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Holt, Rinehant and Winson, Inc, 1966.
17. Baron, R. A. & Libert, R. M., “*Human Social Behavior*”, Homewood[1]: The Dorsey Press, 1971.